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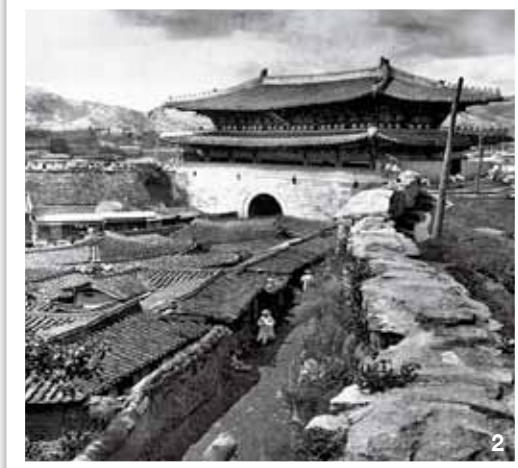
한양도성 순례 성곽에 스민 서울 600년 이야기 마주하다

서울 도심을 둘러싼 한양도성(漢陽都城)은 600년 수도의 시작이다. 조선시대 한양은 수선(首善), 즉 ‘ 으뜸가는 선’의 공간이었고, 이 절대적인 공간의 권위를 드러내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한양도성이었다. 600년이 흐른 지금 한양도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도성은 조선과 대한민국이 걸어온 영욕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한다.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게 해 미래를 그릴 희망까지 담으로 주는 역사문화공간이다. 청명한 가을날, 이 시대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순성(巡城)을 떠나보자. 장구한 세월이 잉태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야 말로 최고의 유희가 될 것이다.

사진 김주형 기자·글 신재우 기자



한양도성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 성곽



1 수선전도(首善全圖).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의 서울지도다. '으뜸가는 선'의 공간이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뜻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1904년 초 송례문 주변 사진.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송례문의 좌우 성벽은 온전히 남아있었다.

한양도성은 역사 공간이다. 순성놀이를 떠나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미리 찾아본다면 여행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한양도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양(漢陽)을 알아야 한다. 조선의 도읍지가 된 한양은 어떤 땅이었을까.

풍수학자들은 새 나라의 수도가 될 만큼 좋은 땅을 이렇게 정의했다. 먼저 내사산(內四山)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가운데로는 내명당수(內明堂水)가 흐르고 이를 감싸고도는 외명당수(外明堂水)도 있어야 한다. 내명당수와 외명당수의 흐름은 반대여야 한다. 내명당수가 흐르면서 빠져나가는 좋은 기운을 외명당수가 다시 받아 왕에게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가 내사산을 둘러싸는 외사산(外四山)까지 있으면 최고의 길지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지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백악·낙산·남산·인왕산이라는 내사산이 있고, 내사산 중심에는 물길이 동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이 있다. 남산 밑에는 물길이 서해로 향하는 한강이 있고, 그 밖으로는 외사산, 즉 삼각산·용마산·관악산·덕양산이 땅을 둘러싸고 있다.

이처럼 한양은 풍수학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땅이었다. 앞서 고려에서도 '한강 북쪽에 양기가 듬뿍 서려 있는 땅'을 명당으로 쳤고, 공민왕은 실제 한양 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좋은 기운으로 뽄뽄 뭉쳐 있는 땅을 수도로 정했다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도 지어야 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궁궐과 관청, 종묘와 사직을 건립한 후 내사산 능선을 따라 성을 축조했다. 타원형 성곽에 만들어진 4대문과 4소문은 도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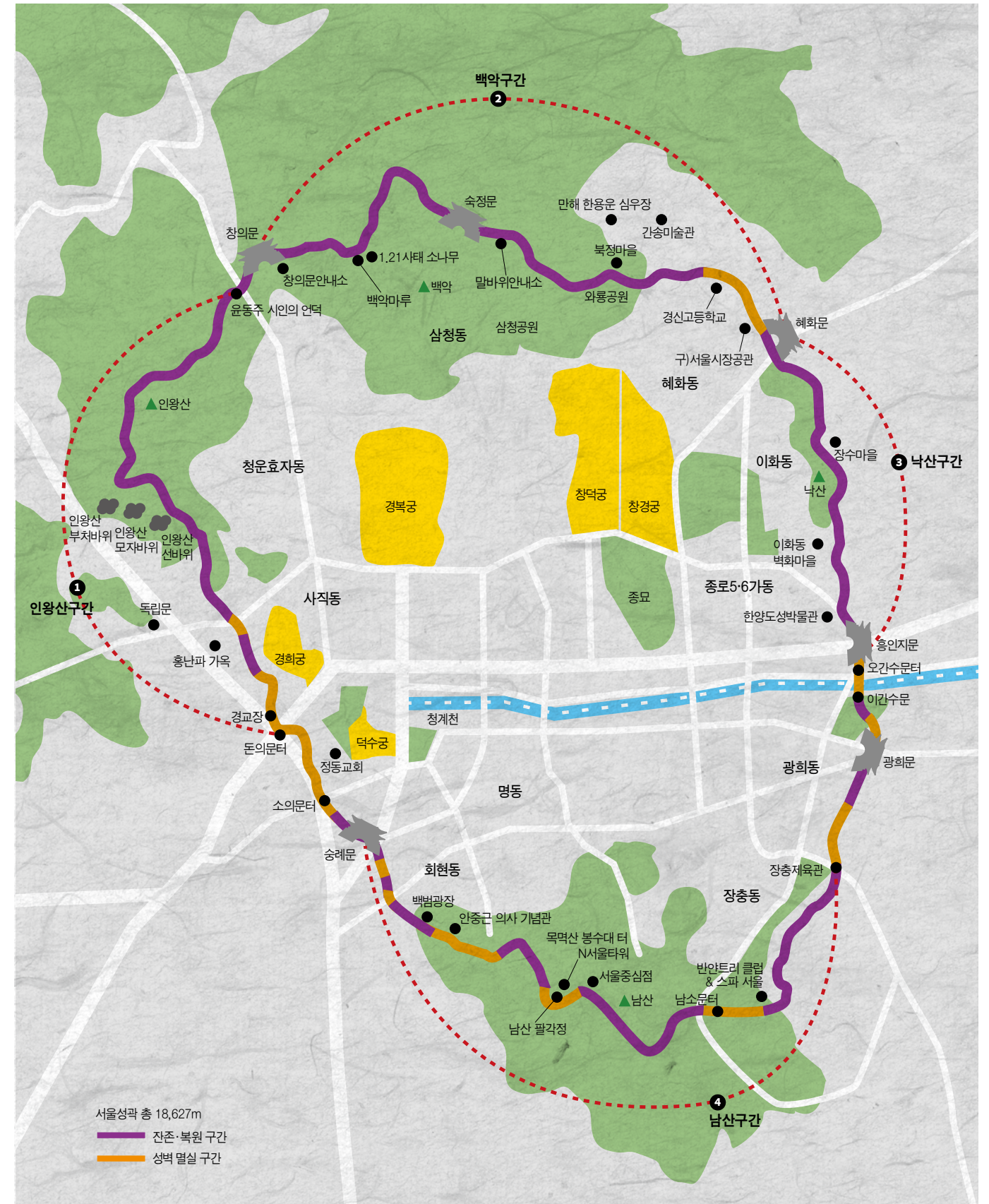
성곽은 원래 전쟁 대비용으로 만들어지지만 한양도성은 한 번도 군사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변란이 생기면 왕은 도성을 버리고 떠났고 도성에는 힘없는 백성만 남았다. 이런 역사 때문에 한양도성은 도시 방어책이라기보다는 임금의 권위와 수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에 가깝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전체 길이가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첫 개축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친다. 그러면서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 514년)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다. 한양도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차와 도로를 개통한다는 이유로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성곽은 왕권의 상징이었기에 성을 허문다는 것은 조선의 흔적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양도성은 경제개발 시대에도 많이 훼손됐다. 평지에 있는 성곽은 대부분 사라졌다. 서울사람 중에서도 4대문은 알아도 성곽이 도시 중심을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제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옛 것으로 치부하면서 도시 개발에만 열중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양도성의 중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남아 있었거나 복원된 성곽은 전체 구간 70%인 12.8km다. 현존하는 세계 도성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내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양도성은 크게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인왕산 구간, 백악구간, 낙산구간, 남산구간이다. 조선의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자 장구한 세월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양도성으로 떠나보자.

서울 한양도성 개괄지도



1 인왕산구간

눈앞에 서울전도 펼쳐진다

내사산 최고 아름다움, 우백호 기상 뿜내는 바위산





1 인왕산 정상에 오르려면 가파른 계단과 바위를 넘어야 한다. 2 복원된 성곽, 아래쪽 원래 성돌과 현대에 들어와 새로 쌓은 성돌의 색깔이 다르다. 3 윤동주 문학관. 4 홍난파 가옥. 5 인왕산 정상에서 본 서울 전경.



도성을 둘러보는 일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희였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순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도성의 둘레는 40리인데, 이를 하루 만에 두루 돌면서 성 안팎의 꽃과 버들을 감상하는 것을 좋은 구경거리로 여겼다. 이른 새벽에 오르기 시작하면 해 질 무렵에 다 마치게 되는데, 산길이 험하여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순성의 유희는 현재도 유효하다. 18.6km나 되는 구간 중에 순성의 재미가 가장 강렬한 곳은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인왕산구간을 지목할 듯하다. 그 이유는 인왕산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내사산 중 주(主)산은 백악이지만 멋스러운 것으로 치면 인왕산을 따라갈 산은 없다. 해발 339m인 인왕산은 풍수상 우백호(右白虎)에 해당하는데, 기암괴석이 널려 있는 이 소나무산은 호랑이에게 어울릴만한 웅장함을 갖췄다.

인왕산구간은 돈의문 터에서 시작해 경교장, 홍난파 가옥, 인왕산을 넘어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이르는 4km 구간이다. 서대문역에 내려 경교장, 서울교육청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으면 길게 뻗은 성곽이 눈에 들어온다. 밝은 회색의 돌 색깔이 말해주듯이 이쪽 성곽은 최근에야 복원된 것이다. 하지만 체성의 제일 아랫부분은 흑갈색을 띄고 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난 후 어느 건물의 담장 축대에 묻혀 있던 것이 오늘에서야 다시 성벽이 된 것이다.

성곽이 끊긴 주택가를 돌아 나가면 종로문화체육센터 앞에서 본격적인 성곽길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도성 안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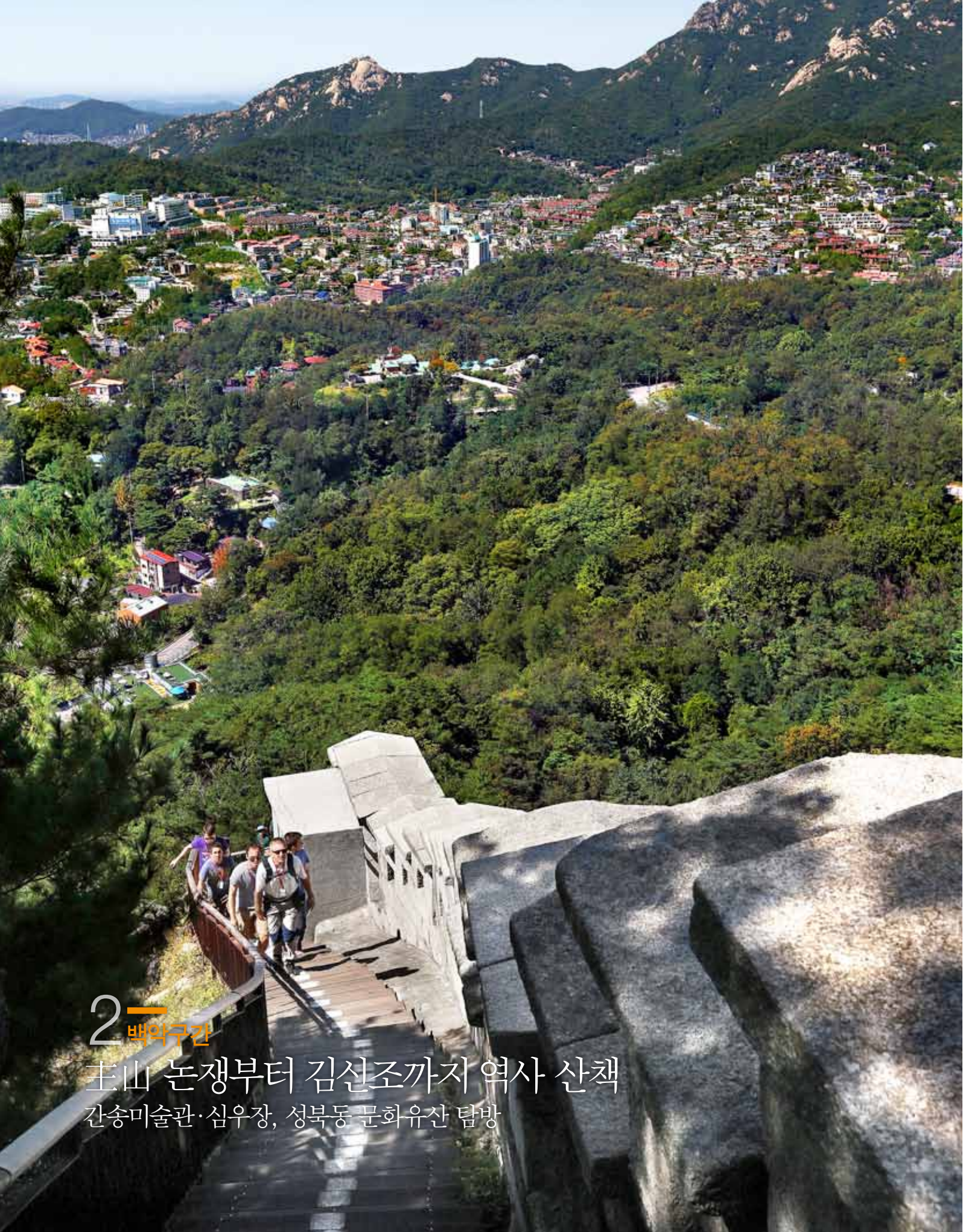
걸을지, 바깥쪽으로 걸을지 결정해야 한다.

한양도성길은 안과 밖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다르다. 성벽은 바닥에서부터 쌓아올려 몸통 역할을 하는 체성과 그 위에 올린 낮은 담장인 여장, 여장 위에 올린 지붕돌인 옥개석으로 구성된다. 성 안쪽을 걸으면 저 아래로 도성 안 풍경이 펼쳐지지만 성곽은 여장 부분만 볼 수 있다. 반대로 성 밖은 나무가 우거진 등산로 같지만 성벽 전체를 볼 수 있다.

인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낙산·남산 구간이 산책로라면 인왕·백악은 등산로다. 우람한 바위가 몸통을 드러내고 소나무가 생명력을 뿜내는 인왕산은 경사가 가파르다. 숨을 고르면서 산새를 둘러보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왕산을 바라보며 ‘인왕제색도’를 그렸던 겸재 정선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인왕산 정상에서는 ‘야호’ 소리가 절로 난다. 내사산 아래 포근히 감싸인 현대 서울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다. 멀리서, 그리고 높은 곳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조망하는 맛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다.

인왕산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도 특급이다. 반듯하게 지어진 경복궁은 경내가 한눈에 보인다. 광화문 거리는 남산으로 쪽 뻗어있고, 남산 뒤에는 한강이 흐른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서울대병원과 홍익대, 63빌딩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산 정상 어느 지점에서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남산 N서울타워다. 한양도성 순례자들은 정상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산을 내려온다. 눈앞에 펼쳐진 살아있는 서울전도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2 백악구간

主山 논쟁부터 김신조까지 역사 산책 간송미술관·심우장, 성북동 문화유산 탐방



1 창의문.
2 내사산 중 가장 높은
백악에서는 남산 너머 한강까지
보인다. 3 백악구간 등산로.
4 1·21 사태 소나무.
백악마루에서 청운대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5 창의문 내부.



인왕구간의 끝인 창의문에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백악구간이다. 백악은 경복궁의 주산(主山)이다. 북현무(北玄武)의 지위를 가지는 백악은 얼굴은 거북이고 몸은 뱀인 현무를 닮았다.

한양 천도가 결정된 뒤 무학대사는 “백악이 뼈가 드러난 골산으로 주산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인왕주산론’을 주장했지만 “자고로 제왕은 남쪽을 보며 정사를 보았다”는 정도전의 ‘백악주산론’에 밀렸다. 왕의 집터는 이렇게 결정됐고, 한양도성의 구도도 완성된다.

백악구간은 창의문과 혜화문을 잇는 4.7km 구간이다. 창의문에서 시작하면 가파른 돌계단을 타고 백악 정상을 올라야하기 때문에 다소 힘들다. 돌계단을 내리막길로 삼고 싶은 사람은 혜화문에서부터 이동하는 편이 낫다.

이 구간은 인왕구간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김신조 등 남파공작원이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이후 백악과 인왕산에 대해 각각 39년, 25년 간 민간의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백악마루에서 청운대로 내려가는 길에는 총탄 15발을 맞은 소나무가 있다. 북한 특수대원과 우리 군경이 교전한 흔적이다. 성곽 길은 다시 개방됐지만 분단의 현실은 그대로다. 청와대 뒷산의 경비 차원에서 창의문, 숙정문, 말바위 안내소를 통해 입장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구간에는 등산복 입은 군인이 많다.

여정의 시작점인 창의문은 한양의 4소문 중 유일하게 조선시대 문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 조선에서는 거의 열린 적이 없다. 태종은 “창의문과 숙정문 일대는 경복궁의 좌우 팔에 해당되므로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풍수학자의 말을 듣고 이들 문을 폐쇄한다. 그런데 딱 한 번 어명도 없이 이 문을 출입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광해군을 축출한 반정군이였다. 영조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문루를 새로 지으면서 인조반정 공신의 이름을 새긴 현판을 걸었다. 현판은 지금도 문루에 걸려 있다.

창의문안내소를 지나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한강 이남까지 넓어진다. 이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방향은 과거 경복궁에서 임금이 한양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 정면에는 임금의 책상 역할을 하는 안산(案山)인 남산, 그리고 한양의 기운을 복돋우는 한강이 펼쳐진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직선으로 쭉 뻗은 세종대로도 보인다.

백악의 성곽은 외룡공원을 지나 서울과학고에 다다르면 끊긴다. 성북동의 문화유산을 즐기려면 외룡공원에서 답사를 멈춰도 좋다. 성곽을 벗어나 조금만 걸어가면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과 ‘황진이’, ‘왕자호동’ 등을 집필한 ‘조선의 모파상’ 상허 이태준의 옛집이 있다. 그가 사용했던 고가구, 소품, 책을 구경할 수 있고 별채 중 하나는 ‘수연산방’이라는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처에는 만해 한용운이 조선총독부를 등지고 북향으로 지은 ‘심우장’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 선생의 옛집도 있다.

낙산 구간 3

구불구불 낙타 등 너머 보이는 서울 풍경

조선판 공사실명제 '각자성석', 성 안팎 구경도 재미





1 남산구간에서는 도성 안쪽을 걸으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성곽을 감상할 수 있다. 2 성곽 밖을 걸으면 체성과 여장, 옥개석 등 성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볼 수 있다. 3 암문. 4 이화마을.



낙산은 아담한 산이다. 해발 고도 124m에 구릉이 부드러워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낙산은 서울의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한다. 낙산이 있는 쪽은 지대가 낮아 서울의 물길이 이리로 흐른다. 용은 물을 만나야 승천할 수 있기에 낙산은 수도를 지키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손색이 없었다.

낙산구간은 혜화문부터 장충체육관까지 3.9km이다. 혜화문을 출발해 서울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라고 불리는 낙산공원으로 천천히 걷는다. 성곽 안쪽에 위치한 낙산공원에서는 산 아래 이화동을 시작으로 발당숲을 이루는 서울을 볼 수 있다. 서울의 풍경은 야간에 더욱 화려해진다.

낙산은 두 개의 특별한 마을을 품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세련된 변화가에서는 반기 힘든 정겨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성곽 바깥쪽에 있는 장수마을은 파란민이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곳이다. 노인 거주자가 많아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구불구불 골목길과 비탈진 언덕, 오래된 양옥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주민들이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는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고 마을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식의 재생 사업을 선택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으로 오르는 비탈길에 있는 이화마을은 벽화로 유명하다. 이곳 역시 낙후된 산동네였지만 2006년부터 작가들이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중국 유커(遊客)까지 즐겨찾는 문화관광지가 됐다. 낙산구간의 매력은 성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변 마을과 문화유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산구간은 전 구간이 성 바깥에서 걸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고, 산 정상에서부터 흥인지문까지는 성 안에도 산책로가 나 있다. 암문을 통해 성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성곽의 모습을 비교하기에 좋다. 암문은 유사시 적에 들키지 않고 성을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문으로 한양도성에는 모두 9개가 있다.

내리막길을 성 안쪽에서 걸으면 낙타 등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성곽을 감상할 수 있다. 낙타산과 타락산은 낙산의 옛 별칭이기도 하다. 어둠이 깔리면 조명등이 성곽을 비추기 시작한다. 도성과 현대 도시가 공존하는 멋진 풍경 사진은 여기서 많이 나온다.

한양도성은 누가 쌓았을까. 성돌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성을 축조하고 개보수한 왕들은 공사를 누가 맡았는지 그 정보를 돌에 새기게 했다. 이것이 각자성석(刻字城石)이다. 현대어로 말하자면 ‘공사실명제’가 이뤄진 셈이다.

최초의 공사는 태조 5년(1396년) 음력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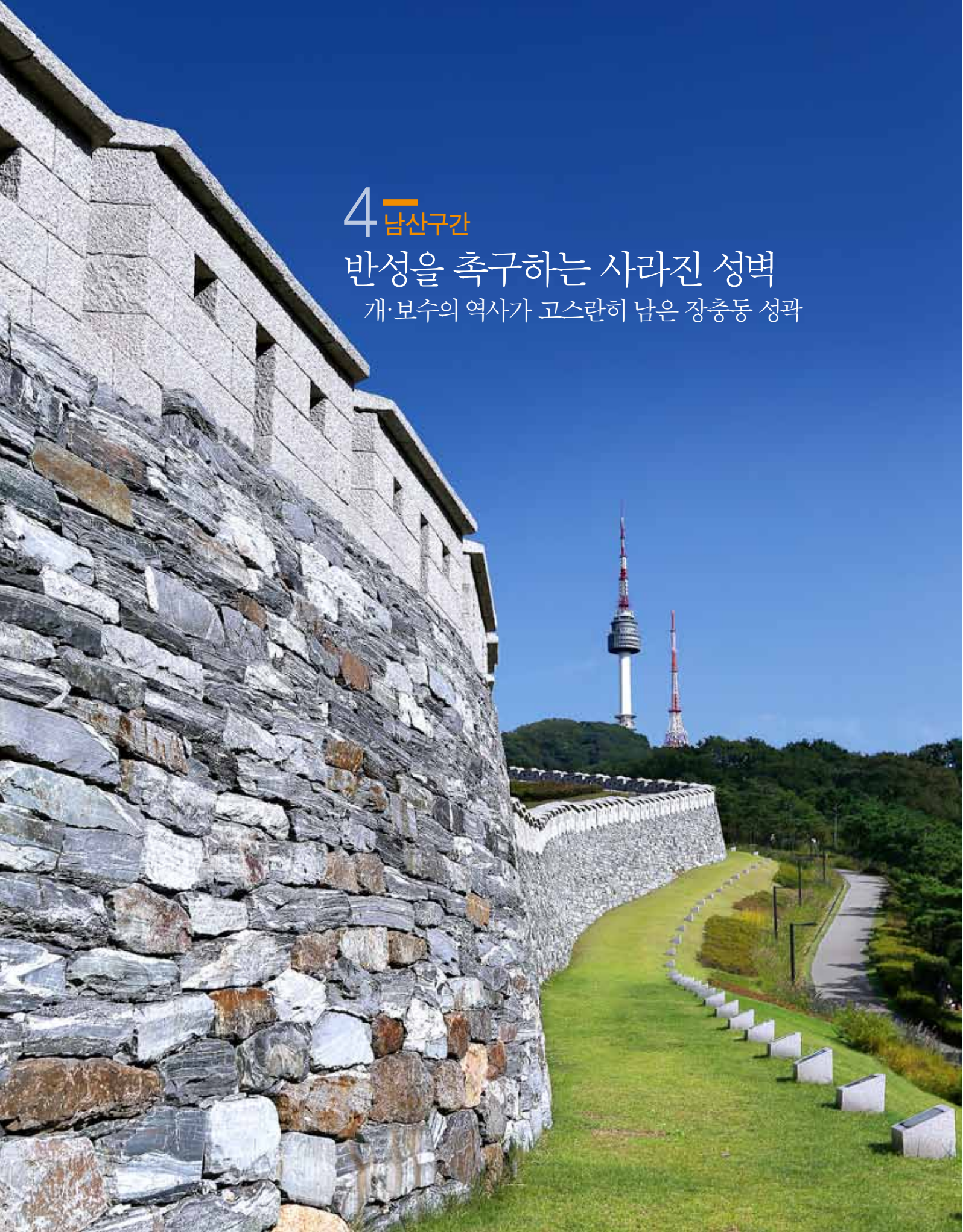
간, 이어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 간, 총 98일간 전국에서 백성 19만7천400여 명이 동원돼 진행됐다. 태조는 공사 구간을 97개로 나눈 다음 백악마루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천자문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다. 또 어떤 군현이 공사를 담당했는지 새기게 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 날짜 등도 명기됐다. 동대문성곽공원 옆에서는 이런 각자성석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곽 정비과정에서 발견된 각자성석이 모여 있다. 각자성석은 비온 날 더 잘 보인다고 한다. 빗물을 먹으면 음영이 지기 때문이다.



4 남산구간

반성을 촉구하는 사라진 성벽 개·보수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장충동 성곽



남산구간은 장충체육관 뒷길에서 남산공원까지 4.2km 구간이다. 남산에는 조선 초기부터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비는 국사당이 있었고 정상에는 변방의 변란을 알리는 봉수대가 있었다. 남산은 백악 밑 경복궁에서 임금이 가장 바라보기 편한 산이었다. 남산은 현재 서울의 중심부로 정상 부근에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임을 표시하는 ‘서울 중심점’이 설치되어 있다.

장충체육관에서 약수동 방향으로 걷다보면 오른쪽에 성곽 절단면이 보인다. 남산 성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남산 성곽은 키가 커서 도성의 웅장함이 잘 느껴진다. 이 구간에서는 축조 시기별로 성돌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재미다. 돌의 크기와 모양만 봐도 쉽게 구별이 된다.

태조는 삼국시대부터 쓰던 판축 기법을 이용해 산에는 석성, 평지에는 토성을 쌓았다. 성돌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서 사용했다. 토성이 홍수에 무너져 도성 재정부에 나선 세종은 둥글둥글 작은 돌을 켜켜이 쌓아 올렸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한 숙종은 성돌을 가로·세로 40~45cm 내외의 방형으로 규격화해서 쌓아올렸다. 이후 성벽이 더욱 견고해졌음은 물론이다.

위풍당당했던 성곽은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옛 타워호텔) 앞에서 사라진다. 성벽을 없앴 사람은 건축가 김수근이다. 김수근은 타워호텔과 자유총연맹을 만들면서 건물 남쪽에 있던 성곽을 헐어 성돌을 건물 담장을 쌓는 데 이용했다. 이 사실은 2007년 문화재청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한양도성이 일본에 의해서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려주는 사례다.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성곽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에 복원된 것이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일제가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주변 성벽을 대부분 파괴한 탓이다. 복원 구간이라고 해도 체성 없이 여장만 들어선 곳이 많아 N서울타워와 백범광장을 지나 송례문까지 가는 길까지 온전한 한양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산자락은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기에 조선의 상징인 한양도성은 더더욱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송례문 성벽도 일제에 의해 파괴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부와 남산을 직선 도로로 이으면서 성벽을 허물었다.

남산구간은 안타까움이 생기는 공간이다. 안타까움만큼 생각할 거리도 던져준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한양도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반성 없는 발전은 없다. 한양도성 순성은 진지한 반성의 출발점이 될 만하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야말로 순성의 최고 기쁨이 아닐까. ❶



❶ 남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국팔도에서 올리는 봉수의 종착점이었다. 평시에는 1개의 봉수를 올렸고, 변란이 생기면 위급한 정도에 따라 2개부터 5개까지 올렸다. ❷ 남산구간에는 여장만 복원된 구간이 많다. ❸ 원충안. 1개의 여장에는 사격용 구멍인 ‘총안’이 3개 있다. 근충안은 가까이 있는 적을 저격할 때 쓰고, 원충안은 멀리 있는 적을 겨냥할 때 썼다. ❹ N서울타워 근처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 ❺ 장충체육관 뒷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곽 산책로. ❻ 끊어진 송례문 성곽.



INFORMATION



어둠이 깔리면 서울은 찬란한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굽이마다 서울 600년의 흔적을 품고 있는 한양도성은 오늘도 포근하게 서울을 감싸 안는다.

둘러볼 곳

인왕산구간

돈의문 터~창의문
길이 4.0km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개방시간 24시간(매주 월요일 휴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무)
주의사항 인왕산은 바위 구간이 많아서 겨울철 등산 시에 주의해야 한다.

경교장(사적 제465호)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후 1946년까지 사실상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된 곳으로, 국무위원회 개최와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주 무대였다. 또한 김구 주석이 약 4년간(1945~1949) 거주하다 서거한 역사의 현장이다. 서거 이후 60년간 중화민국 대사관저, 월남대사관, 병원시설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3월 김구 거주 당시의 임시정부 활동 공간으로 복원해 시민에게 개방했다.



인왕산 국사당과 선바위(중요민속문화재 28호)
조선 태조 때 남산에 세운 국가 신당이다. 일제가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국사당을 할자 이곳에서 제례를 지내던 무속인들이 인왕산 서쪽 자락으로 옮기고 사설 무속 신당으로 바꿨다. 국사당 위쪽에 있는 선바위는 고깔 쓰고 장삼 입은 승려가 참선하는 형상의 바위다. 불교를 배척했던 정도전이 한양도성의 경계를 정하면서 일부러 선바위 있는 곳을 제외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악구간

창의문~해화문
길이 4.7km 소요시간 약 3시간
개방시간 여름철(3~10월) 09:00~16:00, 겨울철(11~2월) 10:00~15:00 (매주 월요일 휴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무)
주의사항 창의문·숙정문·말바위 안내소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북정마을
와룡공원 옆으로 도성 안쪽 길을 따라 걷다보면 성북동으로 빠지는 암문이 나온다. 문밖에 그림처럼 펼쳐진 마을이 바로 북정마을이다. 북정마을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던 '심우장'과 '성북동 비둘기'를 지은 김광섭 시인의 집이 있었다. 성벽 밑에 500여 가구가 웅기증기 모여 있는데 1960~70년대 서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해화문(惠化門)
한양도성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다. 창건 당시에는 홍화문이었으나 창경궁의 정문 이름을 홍화문으로 지음에 따라 중종 6년(1511) 해화문으로 개칭했다. 문루가 없던 것을 영조 때에 지어 올렸다. 문루는 1928년에, 홍에는 1938년에 헐렸는데 1994년 본래 자리보다 북쪽에 새로 지었다.

낙산구간

해화문~흥인지문
길이 2.1km 소요시간 약 1시간
개방시간 24시간 개방
주의사항 정수마을과 이화마을을 지날 때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뒷길
도성을 따라 걷는 길은 대부분 성 안쪽에 조성되어 있어서 주로 어깨 높이 정도의 여장만 보인다. 그러나 낙산구간은 전 구간이 성 바깥에서 걸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물론, 암문을 통해 성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를 따라 이어진 성벽길을 걸으면 한양도성의 웅장함과 견고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세종·숙종·순조 연간의 축성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양도성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동대문병원 일부를 철거하고 세운 서울디자인지원센터 1~3층에는 한양도성박물관이 있다. 방문객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주며 순성 정보를 제공한다.



남산구간

장충체육관~백범광장
길이 4.2km 소요시간 약 3시간
개방시간 남산-24시간 개방 (신라호텔~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 안쪽 구간 09:00~18:00)
주의사항 장충체육관 뒷길은 주택 지역으로 산책 시 주민을 배려해야 한다.



남소문 터
남소문(南小門)은 1457년(세조 3년) 도성 안에서 광희문을 통해 한강으로 가는 길이 멀다는 이유로 새로 만든 문이다. 그러나 풍수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69년(예종 원년)에 폐쇄하였다. 이후 문을 다시 개통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 반얀트리 클럽 & 스파 서울 호텔 뒷문 오른쪽 오르막길 가에 남소문 터 표석이 있다.

백범광장 일대
남산의 백범광장 주변에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성재 이시영 선생 동상,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 등 항일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물이 많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신궁이 있던 곳으로,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을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대체한 것이다. 백범광장 일대의 한양도성은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을 지을 때 모두 철거되거나 흙 속에 묻혔다가 최근 다시 쌓았다. 다만 지형 훼손이 심해 원형을 살릴 수 없는 구간에는 성벽이 지나던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흔적을 표시해줬다.

